

# 『黃帝內經』에서 肝의 發生과 生理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都永敏·尹暢烈

## 在『黃帝內經』中關於肝發生及其生理的研究

都永敏·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在『黃帝內經』中「陰陽應象大論」與「五運行大論」所言及的“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是說明關於肝發生的文章。

肝藏血是肝之發生學特性中屬酸生肝，即從飲食所供應的陰形物質轉化為陽氣的生理現象，肝的貯藏血液功能可視為水穀之氣的酸味的作用。

肝的發生論說明天地之調合作用是人類的生成根本因素。說明在天之六氣和地之五行中介入五味，既可生成人類。從而再次可以確認關於人類發生之“天地合氣命曰人”的含意。

肝的發生原理說明了肝是通過無極，太極，陰陽及所生成的六氣和五行相組合而生成的，這一點確認了此為陽化氣，陰成形的過程，是說明宇宙萬物和人類生成的根本原理。

關鍵詞：『黃帝內經』，發生論，陽化氣，陰成形，東方生風。

## I. 緒論

『黃帝內經』은 韓醫學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는 韓醫學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다. 韓醫學은 기본적으로 內經을 바탕으로 宇宙와 萬物 그리고 人體의 生成과 存在原理를 궁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人體의 기본적인 生理 病理현상을 궁구하여 診斷과 治療에 활용하는 醫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內經에는 이러한 天地人의 發生과 相應原理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다.<sup>1)</sup>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天地合氣 命曰人”<sup>2)</sup>이라고 人間을 정의하고 있다. 人間이라는 존재는 天氣와 地氣가 合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人間の 궁극적인 실체는 天地의 氣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人間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萬물의 발생도 이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 또한 萬物の 生成原理 역시 素問 至眞要大論에서는 “本乎天者 天之氣也 本乎地者 地之氣也 天地合氣 六節分而萬物化生矣”라고 하고, 「天元紀大論」에서는 “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sup>3)</sup>라고 하니 人間과 萬物の 生成이

\* 交信著者：尹暢烈，大田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042) 280-2601, yooney@dju.ac.kr.

1) 羅昌洙의 17인,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01년, pp.

38-47.

2) 裴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000년, p. 139.

天地合氣, 形氣相感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韓醫學에서는 人與天地相應也<sup>4)</sup>라 하여 宇宙自然의 理致와 人間과 萬物의 生成變化 원리가 서로 연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の 臟腑 發生 原理 역시 天地人相應의 原理에 부합하여 生成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天地相應의 原理에 의해 人體의 肝이 生成됨을 설명하는 그 구체적인 句節이 『黃帝內經』의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著者は 이 文章을 “肝의 發生論”을 의미하는 문장이라 규정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人體의 肝이 어떠한 원리에서 발생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문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天地의 發生과 五味의 결합으로 인체의 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肝의 發生에서부터 肝主風, 肝屬木, 肝藏血, 肝主筋, 肝開竅於目 등등의 肝의 독특한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肝의 發生과 生理현상에 대해 궁구하자고 한다.

肝의 發生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韓醫學적인 人間觀이 어떠한 원리에서 형성되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肝의 本質이 무엇이고, 또한 肝의 生理와 病理에 대해 그 본질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기초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肝의 발생원리인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에 대해서 정확하게 解釋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의학계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歷代의 內經 註釋家들이 이 문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장의 본질적인 의미전달에서 여러 가지 풀지 못한 문제들이나 단순한 五行配屬에 의해 설명하는 정도로 풀이하고 있다. 王冰의 註釋에서부터 현대의 주석가들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훨씬 지나도록

이 문장의 해석은 기본적인 표현법의 이해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본질적인 天地人相應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人體의 肝의 生成原理를 이해하는 것은 人間の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이해하는 基礎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생리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병리현상을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당연한 理致인 것이다. 하지만 韓醫學의 基礎教材와 內經의 解說書 등에서도 肝의 發生원리와 생리원리에 대한 명확한 解釋이나 說明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著者는 이제 韓醫學의 人體 生理의 기본적인 肝의 發生原理와 생리적 특성을 宇宙生成의 原理에 의한 易學적인 本質과 天地人相應에 따른 萬物의 生成原理를 통해 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역대 주석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私心 없는 비판을 하여 수 천 년 동안 베일 속에 묻혀있던 한의학의 肝의 發生原理와 생리현상의 특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 II. 本論

### 1. 기존 內經의 註釋書에 언급된 肝의 發生論에 대한 註釋 정리

- 1) 唐代의 王冰의 『黃帝內經素問』<sup>5)</sup>; [王注]라 한다.
  - 2) 明代의 馬蒔의 『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sup>6)</sup>; [馬注]라 한다.
  - 3) 明代의 吳崑의 『黃帝內經素問吳註』<sup>7)</sup>; [吳注]라 한다.
  - 4) 明代의 張介賓의 『類經』<sup>8)</sup>; [類經]이라 한다.
- 
- 5) 윤창렬의 2명,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上,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3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上卷 pp. 108-110까지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下卷 pp. 41-43까지이다.
  - 6) 馬蒔, 新編黃帝內經素問註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41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p. 428-429까지이다.
  - 7) 吳崑, 黃帝內經素問 吳崑註, 서울, 금영출판사, 1980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46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p. 540-541까지이다.

3) 裴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000년, p. 401.

4) 裴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000년, p. 727.

- 5) 清代의 張志聰의 『素問集注』<sup>9)</sup>; [張註]라 한다.
- 6) 清代의 高世棼의 『黃帝內經素問直解』<sup>10)</sup>; [直解]라 한다.
- 7) 清代의 姚止庵의 『素問經註節解』<sup>11)</sup>; [節解]라 한다.
- 8) 清代의 黃元御의 『素問懸解』<sup>12)</sup>; [縣解]라 한다.
- 9) 清代의 陳修園의 『靈素集注節要』<sup>13)</sup>; [節要]라 한다.
- 10) 現代의 方葯中の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sup>14)</sup>; [講解]라 한다.

- 肝의 發生論에 대한 각 각의 註釋은 한 문장씩 인용해야 하는 관계로 번잡할 수 있으므로 인용된 문장에 대한 註釋을 전체적으로 언급하였다.

- 순서는 唐代의 王冰에서부터 現代의 方藥中에 이르기까지 주요 內經의 註釋家들을 時代別로 註釋의 순서를 정리하였다.

- 1)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1) 「陰陽應象大論」

① 東方生風

[王注] 陽氣上騰 散爲風也 風者 天之號令 風爲教始 故生自東方

陽氣가 위로 떠서 흩어져 바람이 된다. 바람은

- 8)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9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49이고,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 52이다.
- 9)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1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22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 254이다.
- 10) 高世棼, 黃帝內經素問直解, 중국, 하남과학기술출판사, 1982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41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p. 477-478까지이다.
- 11) 姚止庵, 素問經註節解, 중국, 인민위생출판사, 1983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26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 226이다.
- 12)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 中 素問懸解, 중국, 중국중의학출판사, 1996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22이며,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 156이다.
- 13) 陳修園, 靈素集注節要, 중국, 新文豐출판공사, 중화67년, 陰陽應象大論篇의 인용은 p. 529이다.
- 14) 方葯中,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중국, 인민위생출판사, 1984년, 五運行大論篇의 인용은 p. 71이다.

하늘이 號令하는 데에 바람이 教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東方에서 生한다.

[馬注] 東方主春 陽氣上升 故東方生風

[吳注] 風者 天之號令 風爲教始 故生自東方.

[類經] 風者 天地之陽氣 東者 日升之陽方 故陽生於春 春王於東而東方生風.

[張註] 風乃東方 春生之氣 故主生風.

[直解] 風乃東方 春生之天氣也.

[節解] 風爲教始 故生自東方.

[縣解] 在天爲風.

[節要] 風乃東方 春生之氣.

② 風生木

[王注] 風鼓木榮 則風生木也.

바람이 나무를 고동시켜 번영하게 하니 바람이 나무를 生하는 것이다.

[馬注] 風鼓則木榮 故風生木也.

[吳注] 風鼓則木榮.

[類經] 風動則木榮也

[張註] 寅卯屬木 春氣之所生也.

[直解] 五行五味之歸於地也.

[節解] 風鼓木榮.

[縣解] 在地爲木.

[節要] 寅卯屬木 春氣之所生也.

③ 木生酸

[王注] 凡物之味酸者 皆木氣之所生也 尙書洪範曰曲直作酸

酸味를 가진 물건은 모두 木氣에서 나온 것이다. 『尙書洪範』에 曲直은 酸味를 만든다고 하였다.

[馬注] 木之性 曲直作酸 故木生酸.

[吳注] 諸味入木變而爲酸 尙書曲直作酸.

[類經] 洪範曰 木曰曲直 曲直作酸 故凡物之味酸者 皆木氣之所化

[張註] 地之五行 生陰之五味.

[直解] 五行五味之歸於地也.

[節解] 按 洪範曰: “曲直作酸” 謂酸味木氣所發化

[節要] 地之五行 生陰之五味.

④ 酸生肝

[王注] 生 謂生長也 凡味之酸者 皆先生長於肝  
生은 生長시킨다는 말이다. 酸味는 모두 먼저  
肝을 生長시킨다.

[馬注] 人身之肝屬木 木性屬酸 故酸生肝.

[吳注] 酸味養肝

[類經] 酸先入肝也

[張註] 陰之所生 本在五味 故酸生肝. 此言內之  
五臟 外之筋骨皮肉 皆收受四時五行之氣味而相生  
故曰 外內之應 皆有表裏也.

[直解] 肝者 人之藏,

[節解] 生爲生長也.

[縣解] 在人爲肝, 肝者, 人之風木也.

[節要] 陰之所生 本在五味.

⑤ 肝生筋

[王注] 肝之精氣 生養筋也.

肝의 精氣는 筋을 生養시킨다.

[馬注] 諸筋者 皆屬於肝 故肝主筋.

[吳注] 肝之精 養筋.

[類經] 肝主筋也.

[張註] 肝之精氣 生筋.

[直解] 筋者 人之體. 五臟五體之屬於人也.

[節解] 肝之精氣 生養筋也.

[節要] 肝之精氣 生養筋

⑥ 筋生心

[王注] 陰陽書曰 木生火 然肝之木氣 內養筋已  
乃生心也.

陰陽書에 木生火라고 하였다. 肝의 木氣가 안  
으로 筋을 모두 기르며 心을 生한다.

[馬注] 木主生火 故筋生心

[吳注] 木生火也.

[類經] 木生火也.

[張註] 筋之精氣 生心. 內之五臟 合五行之氣 而  
自相資生也.

[直解] 人有五體 而五體復有所生 故筋生心.

[節解] 木生火之意.

[懸解] 木生火也.

[節要] 筋之精氣 生心. 內之五臟 合五行之氣 而  
自相資生也.

⑦ 肝主目

[王注] 目見日明 類齊同也.

눈은 밝음을 볼 수 있으니 서로 닮았다.

[馬注] 目者 肝之竅 故肝主目

[吳注] 肝主色 目司色 故肝主目.

[類經] 目者 肝之官也.

[張註]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 故目爲肝  
所主.

[直解] 人有五臟 而五臟各有所主 故肝主目.

[節解] 五臟之精 皆上注於目 而爲之主者 則惟  
肝.

[節要]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辨五色矣.

(2) 五運行大論篇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① 東方生風

[王注] 東者 日之初, 風者 教之始, 天之使也. 所  
以發號施令 故生自東方也. 景霽山昏 蒼埃際合 崖  
谷若一 巖岫之風也 黃昏昏埃 晚空如堵 獨見天垂  
川澤之風也 加以黃黑白埃承下 山澤之猛風也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風은 가르침의 시작  
이고 하늘의 사신이니 號令을 시행한다. 그래서  
東方에서 생겨난다. 날은 개었는데 산은 어둡고  
푸른 티끌이 하늘가에 모여 버량과 계곡에 자욱  
한 것은 바위와 동굴의 바람이다. 黃色과 白色의  
티끌로 어두워 저녁 하늘이 黃白色으로 사방에  
담장을 이루고 하늘만이 보이는 것은 하천과 연  
못의 바람이다. 여기에다가 黃色 黑色 白色의 먼  
지가 더해 아래에서 承하는 것은 산과 연못의 맹  
렬한 바람이다.

[馬注] 東方生風者 天六入之 風居東方 地體中  
爲生 生之始也 自風而生木酸肝筋心矣.

凡東方性用德化政令之類 皆本乎風而內合人之  
肝氣者也. 故肝居左 象風之生於東 筋爲屈伸 象風  
之動也.<sup>15)</sup>

15) 馬蒔의 이 註釋은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

[吳注] 此原東方生生之理明 此者 可以治肝可以治心.<sup>16)</sup>

[類經] 此東方之生化也.

[張註] 五方生天之五氣 五氣生地之五行 五行生五味而生五臟 五臟生外合之五體. 盖人乘天地五方之氣味而生成者也.<sup>17)</sup>

[直解] 此下皆申明 六氣合於人身 而化生萬物之意. 文同 <陰陽應象大論> 解在本篇<sup>18)</sup>

[節解] 東者 日之初, 風者 教之始, 天之使也. 所以發號施令 故生自東方也.

[縣解] 在天爲風, 玄生神也.

[講解] 本節首先確定方位是東方, 東方多風, 因此便把風與東方聯系起來歸爲一類. 這就是原文所謂的“東方生風”.

본 질이 먼저 확정한 방위는 동방인데, 동방은 바람이 많다. 그리하여 바람과 동방을 같이 연계하여 같은 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東方生風”이다.

## ② 風生木

[王注] 陽升風鼓 草木敷榮 故曰風生木也 此和氣之生化也 若風氣施化 則飄揚敷折 其爲變極 則木拔草除也 運乘丁卯丁丑丁亥丁酉丁未丁巳之歲 則風化不足 若乘壬申壬午壬辰壬申壬子壬戌之歲 則風化有餘於萬物也.

陽氣가 오르고 바람이 고동하면 초목이 번영하므로 바람은 나무를 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和氣가 生化한 것이다. 風氣가 施化하면 바람이 흩날리고 터지고 쪼개지며, 변화가 심하면 나무가 뽑히고 풀이 없어진다. 운이 丁卯, 丁丑, 丁亥, 丁酉, 丁未, 丁巳가 되면 風化가 不足하고, 壬申, 壬午, 壬辰, 壬申, 壬子, 壬戌이 되면 風化가 萬物에 有餘하게 된다.

生筋 筋生心에 대한 전체적인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

16) 吳注의 이 注釋은 上記 文章 전체에 대한 注釋을 인용한 것이다.

17) 張志聰의 이 註釋은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에 대한 전체적인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

18) 직해의 이 注釋은 문장 전체에 대한 注釋을 인용한 것이다.

[節解] 陽升風鼓 草木敷榮 故曰風生木也.

[縣解] 在地爲木.

[講解] 由于植物的萌芽生長與風密切相關, 因此便又把風與木聯系起來歸爲一類, 這就是原文所謂的“風生木”.

식물의 맹아생장은 바람과 밀접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또한 바람과 나무를 같은 분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風生木”이다.

## ③ 木生酸

[王注] 萬物味酸者 皆始自木氣之生化也.

酸味를 가진 것은 모두 木氣에서 生化한다.

[縣解] 其味爲酸, 化生五味也.

[講解] 由于植物生長出來的果實多有酸味, 因此便又把木與酸聯系起來歸爲一類, 這就是原文所謂的“木生酸”.

식물에서 나는 과실은 대부분 신맛이 나는데, 이로 인하여 또한 나무와 신맛을 연계하여 같은 분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木生酸”이다.

## ④ 酸生肝

[王注] 酸味入胃 生養於肝臟.

酸味가 胃로 들어가면 肝을 生養한다.

[節解] 酸味入胃 生養於肝臟.

[縣解] 在臟爲肝, 人之合于風木也.

[講解] 由于酸味根據中醫臨床經驗又與臟象學說中的肝密切相關, 肝病常表現爲反酸, 喜酸, 治療

肝病的藥物常爲酸味, 因此便又把酸與肝聯系起來歸爲一類, 這就是原文中所謂的“酸生肝”

酸味는 또한 中의임상경험에 근거로 장상학설 中의 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병은 통상 反酸, 喜酸으로 표현되고, 간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통상 酸味이므로, 이로 인해서 酸과 肝을 연계하여 하나의 류로 귀속시켰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한 “酸生肝”이다.

## ⑤ 肝生筋

[王注] 酸味入肝 自肝臟布化 生成於筋膜也.  
酸味が 肝으로 들어가 肝에서 퍼지면 筋膜을 生成한다.

[馬注] 筋爲屈伸 象風之動也.  
[筋解] 酸味入肝 自肝臟布化 生成於筋膜也.  
[講解] 由于在臨床觀察中 發現人體五臟中的肝 又常與五體中的筋密切相關, 肝有病常可表現爲拘急痙攣或肢體屈伸不利, 筋病常是肝病的外在表現 因此便又把肝與筋聯系起來, 歸爲一類, 這就是原文中所謂的“肝生筋”.

⑥ 筋生心  
[王注] 酸氣榮養 筋膜畢已 自筋流化乃入於心.  
酸氣가 營養하여 筋膜이 끝나면 筋에서 흘러 나와 心으로 들어간다.  
[吳注] 此者 可以治肝可以治心.  
[類經] 明此者 可以治肝補心.  
[筋解] 肝主筋而生血 心主血而生於肝 是猶筋生也.  
[懸解] 是其於萬物之生火也.<sup>19)</sup>  
[講解] 由于在臨床觀察中發現肝與心之間, 肝對心有資生助長的作用, 在治療上補肝也就可以補心, 因此便又把肝與心關聯起來, 這就是原文中所謂的“肝生筋”.

## 2. 肝의 發生論에 대한 註釋들의 考察과 批判.

肝의 發生論에 대한 歷代의 註家들의 註釋을 考察하기 전에 肝의 發生論을 언급한 內經의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의 黃帝와 岐伯의 문답 중, 黃帝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인지 그 진의를 먼저 이해하도록 하자.

陰陽應象大論篇의 原文의 질문을 살펴보자.  
帝曰 余聞上古聖人 論理人形 列別臟府 端絡經脈 會通六合 各從其經 氣穴所發 各有處名 谿谷屬骨 皆有所起 分部逆從 各有條理 四時陰陽 盡有經

紀 外內之應 皆有表裏 其信然乎?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듣건대 上古時代의 聖人께서는 사람의 形體를 論理하심에, 장부를 列別하며, 經脈을 端絡짓고, 六合을 會通하며, 經을 좇음에, 氣穴이 발하는 곳에 각기 處名이 있고 谿谷과 屬骨에 모두 일어나는 곳이 있으며, 分部가 逆하고 從함에 각기 條理가 있으며, 四時陰陽에 모두 經紀가 있으며, 內外가 應함에 모두 表裏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요?’<sup>20)</sup>

五運行大論篇에 있는 原文의 질문을 보자.  
帝曰: 寒暑燥濕風火 在人合之奈何 其於萬物何以生化?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寒暑燥濕風火를 人에 있어서 合함은 어떻게 하며, 그것이 萬物에 있어서 어떻게 化生하는지요?”<sup>21)</sup>

이 두 질문의 핵심은 人間의 形態와 臟腑, 經絡등의 發生과 作用이 天地의 四時陰陽五行六氣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天地와 人이 어떤 連관성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을 黃帝가 묻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人體의 肝의 發生에 초점을 두어 본다면, 人間의 肝이 어떻게 天地로부터 생겨날 수 있었느냐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岐伯의 대답은 당연히 宇宙와 天地의 發生原理로부터 人體의 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은 宇宙의 발생원리와 天地의 발생과 변화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人體의 肝이 어떤 원리로부터 만들어졌느냐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아야 정당한 것이다. 人體의 肝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人間이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天地와 人間의

19) 懸解의 이 주석은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다.

20) 李慶雨, 황제내경소문1, 서울, 여강출판사, 2000년, p. 176.  
21) 李慶雨, 황제내경소문4, 서울, 여강출판사, 2000년, p. 70.

發生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陰陽應象大論의 岐伯의 답변을 보면 天地人의 相應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岐伯의 노력이 보인다. 그 중 東方生風에 대한 岐伯의 답변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보자.

岐伯對曰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臟爲肝 在色爲蒼 在音爲角 在聲爲呼 在變動爲握 在竅爲目 在味爲酸 在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風傷筋 燥勝風 酸傷筋 辛勝酸<sup>22)</sup>

岐伯은 우선 인체의 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즉, 肝의 發生이 氣運의 시작이 나타나는 東方에서부터 六氣의 風과 五行의 木의 변화를 거치게 되며, 이것이 酸味라는 收斂氣運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肝의 특성으로 인해 筋과 心, 目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인체를 구성하고 기본적인 生理作用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岐伯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등의 문장을 첨가하여 天地人物의 변화를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東方生風이나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의 해석은 단순히 “동쪽방향에서 바람이 생겨난다.”거나 “바람이 불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라는 해석이나 “나무는 酸味が 많이 나타난다.”거나 “酸味が 肝을 생겨나게 한다.”는 식의 해석은 모두 본질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석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內經의 표현방식이 일상적인 사건의 표현이 아니라 詩的 표현임을 인식하는 것도 五臟의 發生論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즉, 東方生風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표현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東方生風 風生木 木

生酸 酸生肝과 같은 표현을 분석해 본다면, 이는 直喩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隱喩法이라는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유와 직유법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면, “그녀는 장미처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직유법에 해당되며, “그녀는 장미다.”라는 표현은 은유법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틀림없이 그녀라는 사람은 장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은유법의 특징이다. 하지만 그녀가 장미라는 표현을 사실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장미가 되어버리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東方生風 역시 隱喩的 表現이다.

동쪽에서 바람이 생겨난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평범한 자연계의 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은 동쪽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다. 여름에는 남쪽에서 불기 때문에 南方生風이 되는 것이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기 때문에 北方生風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內經的 표현에는 이러한 구절이 없다. 오로지 東方生風만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실적 현상을 표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주의 발생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詩的인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사실적 현상이라고 짐작하여 해석을 한 모든 註家들은 본질적인 접근을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註釋家들은 “風生木”이라는 구절의 해석을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는 식으로 해석을 붙이고 있다. 이는 은유적 표현을 사실적 현상으로 이해하는데서 오는 유치함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녀는 장미다.”라는 문구를 해석하는데 역대 주가들은 그녀가 실제 장미와 같은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녀는 장미일 수 없다. 다만 그녀가 장미라고 표현한 그 의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그녀가 붉은 옷을 자주 입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웃는 웃음이 장미처럼 화사했는지, 그녀라는 여인에게서

22) 裴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000년, p. 34.

장미향기가 나고 있었는지 등등 그녀가 장미라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와 장미의 의미상 연결고리를 찾아야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의 해석을 위해서는 東方, 風, 木, 酸, 肝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본질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註釋家들의 註釋을 문장별로 고찰해보도록 하자.

1)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의 註釋에 대해서

(1) 東方生風의 註釋에 대해서

일단 東方에 대한 역대주자들의 의견을 살펴 보자.

王注에서는 “東者 日之初”라고 정의한다. 즉, 동쪽이란 하루가 시작되는 곳, 해가 처음 나타나는 곳,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馬注에서는 “東方主春 陽氣上升”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東方이라는 方位의 개념을 季節의인 의미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봄은 陽氣가 上升하는 계절이라는 의미도 더불어 언급하고 있다.

類經에서도 역시 “東者 日升之陽方”이라는 王注의 의미를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故陽生於春 春王於東”이라 하여 馬注의 의미를 습하여 의미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쪽이란 해가 뜨는 곳으로 陽方이며, 陽氣는 봄에 생겨나는 것이고, 봄이란 동쪽에서부터 왕성해진다고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 밖에 나머지 주석가들은 東方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보면, 東方에 대한 의미는

- ① 하루가 시작되는 곳, 해가 뜨는 곳.
- ② 陽氣가 上升하는 곳.
- ③ 陽氣가 生하는 계절, 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지닌 東方이 어떻게 生風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風에서 찾아보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일 것이다.

의미상 그대로 해석해본다면

① 하루가 시작되는 곳에서 바람이 생겨난다. 또는 해가 뜨는 곳에서 바람이 생겨난다.

② 陽氣가 上升하는 곳에서 바람이 생겨난다.

③ 봄에 바람이 생겨난다.

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역대 註釋家들의 風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東方生風의 전체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가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王注에서는 “陽氣上騰 散爲風也. 風者 天之號令 風爲教始.”라고 표현하고 있다. 風이란 陽氣가 上升하여 흩어지면 風이 되고, 이러한 風은 天의 號令이니 教가 시작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고대인들의 風에 대한 개념은 일단 陽氣가 上升하여 흩어지는 것으로 하늘의 使臣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吳注와 節解 역시 王注의 注에 따르고 있다.

類經에서는 “風者 天地之陽氣”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風이란 하늘과 땅의 陽氣라는 것이다. 나머지 주석가들은 “風乃東方 春生之氣”로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講解에서 “東方多風”이라 하여 “동쪽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진의가 더욱 쇠퇴하고 유치해지는 것이라 보여 진다. “동쪽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는 현상으로 東方生風한다는 논리는 內經의 기본적인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風에 대한 주석들을 정리해 본다면,

- ① 陽氣가 上升하여 흩어진 것이다.
- ② 하늘의 사신 역할을 하는 것이다.
- ③ 天地의 陽氣이다.
- ④ 봄에 생겨나는 기운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

東方과 風의 개념을 종합하여 역대 의가들이

東方生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사실 이 문장 전체를 온전하게 해석을 붙이고 있는 註家は 類經이 가장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나머지 주석가들은 東方이나 風의 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급급하고, 문장 전체의 정확한 설명이나 논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의를 밝히지 못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한, 張註인 경우에 “五方生天之五氣 五氣生地之五行 五行生五味而生五臟.”라는 주석과 懸解의 경우 “在天爲風 在地爲木 在人爲肝”이라는 주석을 하였지만, 이는 문장전체흐름의 대의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인체의 肝의 발생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야만 肝의 본질과 생리적 병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五氣와 五行과 五味가 五臟을 生한다.”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하는 것은 왜 東方生風하고 風生木하고 木生酸하여 酸生肝하는나 하는 근본적이고 실재적인 원리인 것이다. 즉, 왜 南方生風이라 하지 않으며, 風生火라 하지 않으며, 木生甘이라 하지 않으며, 甘生肝이라 하지 않느냐하는 등의 명확한 五臟發生原理를 구하고자 함이다.

하여간, 類經의 주석이 東方生風의 전체적인 특성을 설명하려고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風者 天地之陽氣 東者 日升之陽方 故陽生於春 春王於東而東方生風.”

風이란 天地의 陽氣이고, 東이란 해가 뜨는 陽方으로 陽氣는 봄에 생겨나고, 봄은 동쪽에서 왕성해지므로 東方生風이라 한다.

결국 類經의 논리는 東方은 해뜨는 곳으로 陽氣가 生하는 곳이니, 봄에 陽氣가 생겨나고 風이란 天地의 陽氣이니 東方에서 風이 生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주석가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아마 이런 논리성에 포괄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類經의 이러한 논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東方生風이라는 은유적 표현에 있어 그 실체를 “陽氣의 變化”로 보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쪽에서 바람이 생긴다는 구체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天地萬物의 生成 중, 肝의 발생은 “陽氣가 生하는 현상”에서부터 시작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類經의 이러한 논리성은 유감스럽게도 風生木이라는 문장의 해석에서는 연계성을 상실하고 “風動則木榮也.”라고 주석을 하고 있다. 즉,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하는 구체적 현상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東方生風에서 “陽氣가 生하는 현상”인 風이 어떤 변화 속에서 木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風生木에 대한 주석들을 살펴보면 논리의 전개가 빗겨나가고 있음을 확인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주석의 오류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東方生風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일단 간단하게 언급해 본다면, 東方生風이란 우주에서 만물이 만들어질 때, 無極과 太極 陰陽과 五行 六氣변화를 거치면서 人間과 萬物이 生成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문장인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無極과 太極 陰陽 五行과 六氣가 氣의 運動과 變化라는 본질적 의미도 이해해야 한다. 하여간 東方生風이라는 문장의 의미상 해석은 우주에서 “氣가 생겨나는 곳으로부터 氣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東方”이란 “氣가 생겨나는 곳”이란 의미이고, “風”이란 “氣의 움직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2) 風生木에 대한 註釋에 대해서.

風生木에 대한 王註는 “風鼓木榮 則風生木也.”로 되어있다. 이는 “바람이 고동치면 나무가 잘 자란다.” 또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라는 식의 주석을 달고 있다. 王註의 이러한 견해는 馬註 吳註 類經 節解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있다. 그 밖에 張註에서 “寅卯屬木 春氣之所生也.”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으며 節要도 같은 주석을 붙이고 있다. “寅卯가 木에 속한다는

것.”자체가 또 다른 주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木이 왜 春氣가 生하는 바인가 하는 것이 풀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木의 개념을 밝혀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五運行大論篇에 주석에서 王注는 좀더 상세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陽升風鼓 草木敷榮 故曰風生木也.”라고 되어있다. 王注는 “陽氣가 上升하여(陽升)”라는 문구를 첨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風에 대한 이해를 보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木에 대한 변화를 언급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또, “風氣가 施化하면 바람이 훑날리고 터지고 쪼개지며, 변화가 심하면 나무가 뽑히고 풀이 없어진다.”는 주석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람이 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체적 현상을 이야기하여 風生木을 설명하려 한 것이지만 그 본질적 원리로 본다면 정확한 표현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밖에 講解에서는 “식물의 새싹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風生木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단편적인 사실에 집착한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봄에 새싹이 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람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영양분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講解의 논리대로 하면 風生木이 아니라 熱生木이나 濕生木이라는 문장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東方生風에서 역대 주석가들이 東方의 의미와 風의 의미를 구별하여 이를 “陽氣가 生하는 것”이란 공통의 원리를 추구하였던 반면에 風生木의 주석에 있어서는 木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주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風이 天地의 陽氣이고 陽氣가 生하는 것을 風이라 한다면 이러한 風에 의해서 木은 어떤 다른 변화에 속하는가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노력의 흔적은 주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은유적 표현을 사실적 현상으로 해석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은 王注에서부터 시작된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다. 후대의 주석가 역시 風과 木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王注를 그대로 따르는 어리석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春氣之所生”을 木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風이 “春生之氣”라고 주석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 무엇으로 風과 木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주석가들은 문장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적인 대의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宇宙의 生成과 人間과 萬物의 創世原理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風이 木으로 변화하는 것은 無極과 太極 陰陽에서 비롯된 氣의 변화가 六氣와 五行의 형태로 확대되어가며, 陽化氣하고 陰成形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성원리가 도출되는 것임을 간과한 탓이라 보여 진다. 즉, 無極에서 시작된 氣가 陰氣와 陽氣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陰氣와 陽氣는 陰成形의 과정과 陽化氣의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萬物의 形氣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天垂象하고 地成形<sup>23)</sup>하는 것이 우주만물의 탄생원리인 것이니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이란 구절은 우주가 만물을 만들어 낼 氣의 조짐을 드리우고, 이것이 陰化되는 과정에서 形態가 나타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風生木 이란 구절은 東方生風이 “氣가 生하는 곳에서부터 氣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으므로 “風生木”이란 “氣의 움직임이 陰化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生氣의 응축이 진행되어 形象이 생겨난다.”는 의미로 보아야 정당한 것이다. 즉, 창조의 과정 속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쪽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잘 자란다.”는 식의 단편적인 한 현상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

23) 裴秉哲, 黃帝內經諳解, 서울, 성보사, 2000년, p. 304.

인 흐름을 놓친 탓에 그 다음 문장의 해석 역시 오류 속을 헤매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 (3) 木生酸의 註釋에 대해서.

木生酸에 대한 주석들을 살펴보면, 일단 酸味가 木의 성질에서부터 연유되었다는 것이 공통의 설명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王注에서는 “凡物之味酸者 皆木氣之所生也 尙書洪範曰曲直作酸.”(酸味를 가진 물건은 모두 木氣에서 나온 것이다. 『尙書洪範』에 曲直은 酸味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다른 주석가들에게도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馬注에서는 木之性 曲直作酸 故木生酸이라고 하고,

吳注에서는 諸味入木變而爲酸이라고 하고,

類經에서는 凡物之味酸者 皆木氣之所化라고 하고

節解에서는 酸味木氣所發化라고 표현하고 있다.

講解에서는 “식물에서 나는 과실은 대부분 신맛이 나기 때문에” 木生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風生木에서 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탓에 그 연계선상에 있는 변화인 木生酸의 주석들이 木과 酸을 동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五行과 五味의 연관성에 대한 이러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한의학의 五臟 發生原理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간 결정적인 문제라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風이나 木의 속성은 無極과 太極 陰陽에서부터 발생된 氣의 속성으로 본다면 “氣의 움직임” 또는 “氣가 생겨남”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風과 木의 차이가 있다면 風에 비해 木이 좀 더 陰成形에 가까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뿐이다. 즉, 形象을 갖춘 것이 木의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酸味는 이러한 風과 木이 가지는 氣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있다는 것을 역대 주석가들은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酸味의 특성은 氣를 收斂하는 작용이 강하다.<sup>24)</sup> 本草의 가장 기본적인 五味의 특성을 볼 때, 酸味는 收斂作用인 것이다. 이는 風과 木의 發生 또

는 發散의 작용과는 상대성을 가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收斂하는 것과 發散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氣의 屬性이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講解에서와 같이 “식물의 과실이 대부분 신맛이 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발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木生酸의 酸이 과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內經의 표현이 은유적 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에 단편적 현상에 집착하여 주석을 단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여간 이 문장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肝의 본질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하필 木生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東方生風에서부터 酸生肝에 이르기까지 우주가 어떻게 만물을 생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궁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無形의 氣에서부터 有形의 萬物을 생성하는 과정을 수수께끼 같은 詩語로 표현한 문장의 의미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東方에서부터 시작된 生氣의 운동은 風과 木의 변화를 거치면서 陰化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形態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六氣와 五行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를 有形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주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生氣의 특성을 지닌 萬物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주는 氣가 上升하고 發散하는 것을 갈무리해서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生氣를 收斂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氣를 收斂하는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酸味의 개입인 것이다.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氣의 生長化收藏하는 변화는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陽化氣하고 陰成形하는 전체의 창조 원리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조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木生酸이란 生氣의 작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有形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氣의

24) 신민교, 임상본초학, 서울, 영림출판사, 1988년, p. 102.

發散을 적당하게 收斂하여 形體를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木生酸이란 우주 창조의 오묘함을 발견한 聖賢들의 노래를 담은 아름다운 문장인 것이다.

#### (4) 酸生肝의 註釋에 대해서.

酸生肝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酸味が 肝을 生長시킨다. 또는 滋養시킨다.”는 것이다. 王注에서는 酸生肝의 生의 의미가 生長이라 하고, 酸味는 모두 먼저 肝을 生長시킨다(凡味之酸者 皆先生長於肝)라고 주석을 붙여 놓았다. 吳注와 類經, 節解등도 같은 맥락의 주석을 붙여 놓았다. 나머지 주석들은 酸味와 肝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다만 “陰之所生本在五味”라는 대의를 이야기하거나 “在人爲肝, 肝者, 人之風木也.”이라하여 酸生肝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講解에서는 “간병은 통상 反酸, 喜酸으로 표현되고, 간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통상 酸味이므로”라는 병리적 논리로 이를 설명하려고 한 헛된 노력이 보이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주석도 肝이 왜 酸味로부터 생겨났는지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酸味에 대한 착각은 木生酸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酸味는 木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木은 氣가 生하는 모습이고 酸味는 氣가 收斂하는 모습이다. 둘의 작용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酸味는 그 본성을 木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주석가들은 木과 酸味が 同類의 기운으로 보았고 이것이 합쳐진 것을 肝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肝의 발생원리는 東方에서 시작된 生氣의 운동이 風과 木을 거쳐 陰化되어 形象을 갖추게 되며, 실제로 形體를 만들기 위해서 生氣를 收斂하는 酸味の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肝의 본질적인 특성은 氣를 生하는 본질적 작용이 酸味로 인해 적당히 조절되어진 形體인 것이다. 이것이 한의학의 肝의 發生原理인 것이다.

한의학의 인간의 정의는 天地合氣 命曰人이라 한다. 天地의 氣가 합쳐져 인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天地의 氣란 우주발생에서 연유된 氣의 운동으로 天의 氣와 地의 氣가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在天爲氣이고 在地成形이니 天氣는 六氣로 드러나고, 地氣는 五行으로 나타나게 된다. 五行과 六氣에서 발생된 氣와 形의 절묘한 조합이 萬物의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氣와 形의 조합은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라는 측면으로 만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의학의 기본적인 발생 원리인 것이다.

肝의 발생 역시 이러한 우주의 기본적인 발생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이란 六氣와 五行 그리고 五味의 절묘한 조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단편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詩的이면서도 구체적인 발생원리를 설명하는 名文 중에 名文인 것이다.

### 3. 肝의 生理에 대한 考察

앞써 肝이 六氣와 五行 그리고 五味의 개입에 의해 生成되어지는 원리를 살펴보았다. 肝은 東方의 生氣를 받아 風과 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酸味の 개입으로 인해 收斂하는 기운으로 그 형태를 생성,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肝은 그 작용에 있어서는 風과 木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生하고 動하고 升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體적인 의미에서는 기운을 收斂하고 貯藏하는 작용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肝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생리작용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자.

#### 1) 肝藏血

肝藏血이란 “肝이 血을 貯藏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기초한의학”<sup>25)</sup>과 “한의학총강”<sup>26)</sup>에 언급된 肝藏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보도록 하자.<sup>27)</sup>

“肝藏血은 『素問·調經論』과 『靈樞·本神』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肝藏血의 생리기능은 血液을 貯藏하고, 血量을 조절하는 두개의 방면을 포괄하고 있다. 肝藏血의 본래의 의미는 肝의 血液貯藏과 出血을 방지하는 생리기능을 의미한다. 肝은 體가 陰이고, 用이 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일정한 양의 血液을 저장해야만 비로소 肝의 陽氣를 制約하여 升動함이 太過하지 않도록 하여 沖和와 條達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疏泄機能을 유지하게 한다.

만일 肝의 藏血 기능이 감퇴하게 되면, 한 방면에서는 肝의 貯藏 血液이 부족하게 되어져서 肝血虛를 일으키거나 혹은 肝의 陽氣 升動을 제약하지 못하여 肝陽上亢, 肝火上炎, 肝風內動등의 병리변화를 일으키게 된다.(중략).

肝의 疏泄機能과 藏血 기능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血證論』臟腑病機論에서는 “肝屬木 木氣沖和條達 不致鬱遏 則血脈得暢(肝은 木에 속하며, 木氣가 沖和하여 條達되고, 抑鬱되지 않으면 血脈은 暢通한다)”이라고 하였다. 肝의 疏泄기능과 藏血기능은 相補相成한다. 肝의 疏泄기능이 정상이면 氣機가 調暢해져 血液의 運行이 通達해지는데, 이것은 肝의 藏血과 調節血量하는 기능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전제조건이 된다.”

肝藏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가만히 보면, 인체의 肝이라는 조직이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져 있다. 말 그대로 이해한 것이라 판단되어지는 설명방식인 것이다. 간의 생리현상의 기본적인 작용인 肝藏血이 “혈액의 저장과 출혈의 방지”라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설명방식이라고 저자는 판단한

다. 왜냐하면 肝이라는 조직에서 저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주로 음식물에서 얻어지는 당분이지 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간에는 다량의 혈액이 유입되어 흐르고 있지만 肝에서 직접 저장되어지기보다는 혈액이 소통을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때 肝藏血에 대한 한의학적인 개념은 이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한의학에서 血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혈액의 의미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음식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라는 의미이다. 心主血이라 할 때, 血은 혈액의 순환을 주관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혈액이라는 개념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肝藏血이나 脾統血이라는 생리에서 언급되어지는 血은 혈액의 의미보다는 飲食의 영양소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한 것이다.

血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생성되는가하는 문제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中焦는 胃의 가운데서부터 上焦의 뒤로 나오는데 飲食의 氣를 받아들여 하고, 찌꺼기는 내려 보낸다. 그리고 진액을 熏蒸하여 정미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肺脈으로 올려 보내어 血이 되게 한다.”<sup>28)</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에 血은 음식물이 변화하여 형성된 영양소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이를 혈액 순환의 의미로서의 血로 보는 것은 의미상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肝은 藏血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肝藏血의 血은 음식물에서 흡수되는 영양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저장한다는 것은 陰氣(음식의 영양소)를 收斂, 貯藏하여 陽氣가 生하게 하는 기본적 단계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자연계에서 肝의 生成이 風木의 發生하는 기운이 酸味の 收斂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니 陰氣를 收斂하여 陽氣를 發生하게 하는 것이 肝의 본질적인 작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陰氣를 충분히 공급하는 일이 陽氣를 生成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25) 배병철, 기초한의학, 서울, 정보사, 1997, pp. 310-312.

26) 羅昌洙 外17人教授,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244-246.

27) 기초한의학과 한의학총강에 언급된 肝藏血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28) 허준,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pp. 353-354.

도 우선적인 일이므로 음식물을 통한 陰氣의 공급과 저장의 역할인 肝藏血이라는 기본적인 생리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肝이 藏血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해야 한다면, 이는 肝의 본질적 생성원리가 氣의 생합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이므로, 또한 陰에서부터 陽이 생하는 것이 風木의 과정이라는 특성과 부합하는 현상이니, 陰氣인 음식물을 받아들여 陽氣를 생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肝의 생성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생리작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 肝主疏泄

疏泄이란 즉, 疏通發泄, 暢達, 宣泄의 의인 것이다. 이는 生氣方盛하니 陽氣가 發泄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肝主疏泄은 肝이 全身의 氣, 血液, 津液 등을 疏通, 發泄하여 그 것으로 하여금 暢達 宣泄하는 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간주소설은 먼저 주단계의 격치여론에서 보이는데 “主閉藏者腎也, 司疏泄者肝也”라고 하였으나 주씨가 논술한 간주소설은 신주폐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말한 것으로 정액을 소설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후세의 의학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다. 주로 명대의 薛立齋 張介賓 孫一奎 등이 이는 肝의 성질이 條達을 좋아하고 抑鬱됨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후 더욱 학리적인 발전을 하게 되어 肝主疏泄은 氣機, 情志, 脾胃運化機能과 관계를 크게 확장시켜나가면서 온전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肝의 疏泄기능은 肝의 主升 主動의 생리적인 특성을 이론적 기초를 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작용은 1) 調暢氣機 2) 脾胃의 運化기능을 促進 3) 調暢情志라고 파악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肝의 疏泄作用에 대해 肝의 발생학적 특성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肝의 존재 이유는 인체에 필요한 氣를 生成하

기 위함이다. 風木의 기운은 우주의 생성 당시 氣의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氣는 陰에서부터 陽이 생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氣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氣生於穀<sup>30)</sup>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飲食에서부터 얻어지는 氣의 발생이 肝의 가장 주된 역할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肝藏血이란 肝의 生氣에 필요한 後天의 水穀之氣를 흡수하는 肝의 생리적 현상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氣를 發生시키는 나무와 인체의 肝의 작용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다.

肝藏血이 水穀의 陰氣를 흡수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肝의 발생당시 酸味の 개입으로 收斂하는 작용을 가지게 되는 특성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렇다면 肝主疏泄이라는 작용은 이렇게 얻어진 水穀의 陰氣를 통해 生氣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疏泄이라는 작용이 氣의 升降작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陰氣로부터 陽氣가 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肝의 藏血, 疏泄작용은 陰氣로부터 陽氣를 생하는 기본적인 대사과정으로 음식의 흡수와 관계가 있다. 즉, 陰形을 氣化할 것인가 同化할 것인가하는 것은 肝의 藏血과 疏泄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며, 膽汁의 분비 역시 이러한 기전에서 脾胃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肝의 本性은 風木의 氣이며, 그 形體를 이루는 원리는 이를 收斂한 酸味の 작용에 의한 것임을 생각해본다면, 飲食이 脾胃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면 이를 氣化하기 쉬운 상태로 消化한 다음, 酸味の 작용에 의해 肝으로 들어가게 되고, 肝으로 유입된 水穀의 精氣는 인체에 필요한 生氣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깨끗한 水穀의 유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깨끗한 陽氣를 생하게 하는 것도 肝이 수행해야 하는 직분 중에

29) 羅昌洙 外17人教授,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p. 240-244

30) 허준, 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1999. p. 157.

하나이니 음식을 解毒하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3) 肝開竅於目, 肝主筋

#### (1) 肝開竅於目.

肝과 눈의 관계를 內經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金匱眞言論에는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한다하였고, 『靈樞』經脈에서는 “肝, 足厥陰之脈. 上貫膈, 布脇肋, 循喉嚨之後 上入頰頰 連目系.”라 하였다.

이 문장을 보면 東方의 青色의 기운이 肝을 형성하고, 肝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운으로 인해 눈의 작용이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눈의 구조적인 발생에 있어서는 肝뿐만 아니라 五臟六腑의 精氣가 모두 개입된다는 설명도 있으니 『靈樞·大惑』에서 “五臟六腑의 精氣는 모두 눈으로 모여 사물을 보는 작용을 한다. 이들 精氣는 눈의 오목한 곳에 모여들어 눈동자를 형성하는데, 骨의 精은 眼孔이 되고, 筋의 精은 검은자위가 되며, 血의 精은 血脈이 되고, 氣의 精은 흰자위가 되며, 肌肉의 精은 눈꺼풀이 되고, 筋骨血脈의 精氣를 포괄한 것과 經脈이 합쳐져 目系를 형성한다. 目系는 상부의 腦에 속하며 뒤쪽의 頂部로 나온다.”라고 하였고, 『素問·五藏生成論』에서는 “諸脈者 皆屬於目.”이라 하였다.<sup>31)</sup>

이를 종합해서 본다면 肝만이 눈과 연관을 맺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오체의 구성은 모든 장부의 기혈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오장의 정기가 미치는 영향의 강약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다만 肝이란 生氣의 시작이니 氣가 生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陰에서 陽을 生하는 象이므로, 하루의 음양으로 이를 이야기하면 밤이 음이고 일출하여 양기가 생하여 아침이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인체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니 이는 생기의 활동이라는 측면으

로 간과 목이 동일한 기의 속성을 가진다고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 (2) 肝主筋

인체의 筋의 운동은 肝血의 滋養에 의지한다. 肝血이 충족되면 筋이 그 滋養함을 얻어서 이에 활발하게 수축과 이완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素問·經脈別論』에는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이라 하였고, 『靈樞·九鍼』에는 “肝主筋”이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肝生筋”이라 하였고, 『素問·平人氣象論』에는 “肝藏筋 膜之氣也”라고<sup>32)</sup> 하였는데 이는 모두 筋의 운동이 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문장들인 것이다.

五行의 木은 氣의 生하고 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계에서 陰으로부터 陽氣가 生動하는 모든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인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筋은 주도적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내부로부터 氣血의 영양공급을 받아 생동하는 형상이니 肝과 筋은 同一한 氣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結 論

1. 『黃帝內經』의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에 언급된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의 文章은 肝의 發生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 역대 주석가들의 주석은 五臟發生論에 대한 명확한 논리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주석들은 六氣와 五行의 變化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五行과 五味의 관계를 同類의 氣運으로 해석함으로써 五臟의 본질적인 발생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31) 羅昌洙 外17人教授,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p. 249-250.

32) 羅昌洙 外17人教授, 한의학 총강, 서울, 의성당, 2001, p. 248.

3.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의 해석은 “氣가 생하는 곳으로부터 生氣의 氣象이 나타나게 되고, 生氣의 氣象은 陰化되어 生氣의 形象을 생겨나게 하며, 生氣는 收斂하는 酸味를 받게 되니, 風과 木과 酸味이 습하여 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肝의 발생적 특징을 정확히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木은 生氣하나 酸味는 收斂하니 이 둘은 同類의 기운이 아니며 이를 동일한 五行의 특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주석가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五行과 五味 배속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5. 肝藏血은 肝의 발생학적 특성 중 酸生肝 하는 것으로 飲食으로부터 공급되는 陰形으로부터 陽氣를 生動하기 위해 나타나는 생리 현상으로 肝이 血을 저장한다함은 水穀之氣를 酸味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6. 肝主疎泄의 생리는 肝의 본질적 작용으로서 肝藏血을 통해 흡수된 水穀으로부터 비로소 生氣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肝의 발생 과정 중 그 本體가 風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리작용이라 할 수 있다.
7. 肝開竅於目이나 肝主筋은 肝의 특성이 陰에서부터 陽이 생하는 특성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현상이나 인체의 움직임은 筋에서부터 비롯되는 현상들은 風木과 동일한 氣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8. 肝의 發生論은 人間の 生成이 天地의 調合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天의 六氣와 地의 五行과 여기에 五味의 개입으로 人間이 生成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니 인간은 天地合氣命曰人이라 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9. 肝의 發生原理는 無極 太極 陰陽을 거치면서 生成된 六氣와 五行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陽化氣하고 陰成形하는 과정으로서 宇宙 萬物과 人間이 生成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1. 윤창열 외 2명, 黃帝內經素問 王冰注(上,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3년.
2. 馬蒔, 新編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대성문화사, 1994년.
3. 吳崑, 黃帝內經素問 吳崑註, 서울, 금영출판사, 1980년.
4.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9년.
5.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1년.
6.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중국, 하남과학기술출판사, 1982년.
7. 姚止庵, 素問經注節解, 중국, 인민위생출판사, 1983년.
8.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 中 素問懸解, 중국, 중국중의약출판사, 1996년.
9. 陳修園, 靈素集注節要, 중국, 新文豐출판공사, 중화 67년.
10. 方葯中,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중국, 인민위생출판사, 1984년.
11. 李慶雨, 황제내경소문1, 서울, 여강출판사, 2000년.
12. 裴秉哲, 黃帝內經讀解, 서울, 성보사, 2000년.
13. 신민교, 임상본초학, 서울, 영림출판사, 1988년.
14. 羅昌洙 外 17人,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01년.
15. 허준,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16. 배병철, 기초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